주님공현대축일(1월 8일)
동방 박사들의 방문 (마태 2,1-12)

빛을 찾는 사람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1. 5.)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빛이신 주님, 저희를 찾아오소서.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2"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
어보았다. 5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
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
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
라.'" 7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
는, 8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
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9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
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그

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마태 2,2)

나는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마태 2,8)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일보다 사진을 찍는 일이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진이 잘 나오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있어보이는 운동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참된 것은 허세를 부리며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참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 가운데 크고 높으신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참되고 진실한 것을 찾고 좇으면 자연스럽게 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5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